

# 천마(天馬): 고궁박물관 소장 명품전

강인함과 기백, 충성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존재인 말(馬)은 중국 화단에서 즐겨 그리며 오랫동안 사랑하였다. 당대(618~907)에 이르자 말 그림은 독립적인 화목(畫目)으로 자리 잡았고, 명 말기에서 청 초기(17~18세기)에 해부학과 원근법 등 유럽의 지식과 기법을 받아들이면서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청 말기(19세기~20세기 초)에서 근대에는 전통 중국 회화 기법과 유럽 및 기타 양식의 융합에 한층 박차를 가하면서 뚜렷한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 전시는 2026년 말의 해를 기념하여 궁정과 문인, 고전과 현대, 중국과 유럽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 말 회화의 성취를 조명한다. 크게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원대(1271~1368)부터 20세기까지 60여 명의 저명한 작가가 남긴 작품 약 100점을 선보인다. 고궁박물관 소장품에 홍콩미술관과 홍콩중문대학 미술관의 작품을 더하여 풍성함이 돋보인다. 저마다 탁월함을 뽐내는 화폭 위로 말 그림이라는 장르가 지닌 독자적인 조형 언어와 문화적 울림이 선명하다.

《천마(天馬): 고궁박물관 소장 명품전》은 홍콩고궁박물관과 고궁박물관이 공동 주최하고, 공익자선연구원(Institute of Philanthropy)이 단독으로 후원한다.

## 궁정(宮廷): 기마 행차와 활쏘기

명대(1368~1644) 궁정 화가들은 역대 황제의 중요한 일화를 자주 묘사하였다. 청대(1644~1911)의 군주는 자신의 문치(文治)와 무공(武功)을 기리는 일에 한층 더 힘을 쏟았다. 황제가 궁궐 밖으로 거동하는 행행(行幸)과 귀족의 사냥은 궁정 회화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주제가 되었고, 이러한 장면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말이었다. 17~18세기에는 유럽 고전 회화 기법이 중국에 전해졌다. 해부학, 선원근법, 명암법, 색채 이론 등의 원리가 중국 회화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과 결합하면서, 청나라 궁정에서 활동한 유럽 선교사이자 화가인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 1688~1766),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Louis Antoine de Poirot, 1735~1813) 등은 입체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세밀한 말 그림의 새로운 양식을 발전시켰다. 대형 궁정 회화는 협업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유럽 장인이 먼저 말과 인물을 그리면 중국 화가가 산수 배경을 덧붙이는 식이다. 이렇게 공동 제작한 작품은 황제를 용맹한 무인으로 묘사하여 황권의 위엄을 드러내는 동시에, 중국과 유럽 회화 전통의 융합을 수용한 청 궁정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 변경(邊境): 먼지구름을 가르는 말발굽

말은 전통적인 변경(邊境) 주제 회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러 왕조에서 제작한 조공 행렬도에서는 중국의 변경 지역이나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말을 끌고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었다. ‘소군출새(昭君出塞)’와 ‘문희귀한(文姬歸漢)’은 한나라(기원전 206~서기 220) 고전 문헌에 기초한 전통 화제로, 말 그림과 고전적인 여인의 초상을 결합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고독감을 자아내고, 고대 전쟁과 화친 혼인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직조한 비극에 몰린 여성의 운명을 환기한다.

청나라 궁정 화가들은 여러 차례 명을 좇아 전투 장면도 연작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한편에는 대개 황제가 지은 시문을 적어 제발(題跋)로 삼았다. 이후 동판화 기법으로 복제하여 궁정 밖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작품은 역사적 사건의 시각적 기록으로, 국가가 오랫동안 추구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다.

## 산수(山水): 심경과 말

전통적인 문인 산수화에는 말과 인물을 자그마하게 그려 넣기도 했다. 주로 준마에 올라 산과 숲을 유람하는 사대부의 세련된 정취를 화폭에 담았다.

“흐드러진 꽃이 눈을 어지럽히자,

나지막한 풀 사이로 말발굽이 보일 듯 말 듯”

시구의 표현처럼, 말은 문인의 일상과 예술 창작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말은 자연을 함께 유람하는 훌륭한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정과 포부를 투사하는 매개였다. 장목(張穆, 1607~1683)은 17세기에 중국 남부 영남(嶺南) 지역에서 활동한 말 그림의 대가이다. 선대 거장의 화법을 능숙하게 계승하면서도 실제 관찰을 바탕으로 세밀한 필선과 절제된 수묵 담채가 특징인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였다. 장목의 작품은 명·청 문인 화가들이 고전적인 인마도(人馬圖)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변용하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 동서(東西): 시간을 달리는 준마

청 말기에서 근대(19세기 중엽~20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 유럽과 일본의 회화 양식은 한동안 정체되었던 말 그림에 새로운 활력으로 등장하였다. 중국과 유럽의 예술이 교류하고 전통과 근대 양식이 혼용하는 시기는 자연히 파격을 불렀다. 상해화파 화가 임의(任頤, 1840~1896)는 말과 인물을 사의(寫意)적 필치로 대담하게 묘사하여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났다. 그의 화풍은 기백이 넘치면서도 우아하고 자유분방한 표현으로 신선한 시각적 전환을 제시하였다. 청 황실 종친 아이신기오로 재영(愛新覺羅 載瀛, 1859~1930)은 안장을 엮은 말을 탁월하게 묘사한 인물로, 중국 회화 기법에 유럽식 소묘의 구조적 원리와 표현 감각을 능수능란하게 접목하였다.

20세기 초, 유럽과 일본에서 수학한 중국 화가들은 중국과 유럽의 전통을 아우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중 서비홍(徐悲鴻, 1895~1953)은 말 그림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전통 수묵과 대사의(大寫意) 화법 위에 유럽식 해부학적 정확성을 절묘하게 더하여, 강건한 체구와 역동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상징적인 말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